38대 임기 시작…“시대 이끌 불교로 도약”

9월 28일, 조계사 대웅전서 고불식
“공의 모아 공감, 공심으로 실천”
‘세상 평안 함께 여는 불교’ 현판도
37대 취임 이후 108배 정진 이어가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은 9월 28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취임 고불식’을 봉행하고 새 집행부의 시작을 알렸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9월 28일 제38대 집행부의 출범을 부처님 전에 고하고 새 임기를 공식 시작했다. 스님은 “공의와 공감, 공심으로 더욱 당당한 승가, 더욱 안정된 종단, 더욱 젊고 역동적인 한국불교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28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취임 고불식’에는 총무부장 정문 스님과 기획실장 묘장 스님 등 총무원 부실장 스님들과 조계사 주지 담화 스님, 부주지 탄보 스님, 이승현 신도총회장,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교역직 종무원 등이 참석했다.

진우 스님은 먼저 제37대 총무원 집행부의 4년을 “승가와 재가가 하나 된 원력으로 종단의 안정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안정을 넘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한국불교’로 도약해야 한다”며 제38대 집행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중앙의 권한을 내려놓고 ‘교구가 살아 숨 쉬는 종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중앙종무기관은 더욱 효율적으로 혁신하고 교구와 지역 사찰에 대한 지원은 강화해 사부대중의 평등하게 참여하는 화합 종단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고불문을 낭독하고 있다.



청사 1층에 현판을 제막하는 모습.

수행과 전법을 뒷받침할 승려복지와 교육체계 기반도 강화한다. 진우 스님은 “출가에서 열반까지 책임지는 승려복지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고, 시대에 맞는 교육과 도제양성의 혁신을 통해 미래 불교를 이끌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밝혔다.

선명상을 통해 ‘세상의 고통을 치유하고 시대를 이끄는 불교’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진우 스님은 “우리의 전통 선 수행을 ‘선명상’으로 대중화해 국민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한국불교의 수행과 문화를 세계에 널리 펼쳐 정신문명의 새로운 길을 열겠다”며 “청년과 함께 불교의 미래를 만들고, 자비의 실천으로 사회의 그늘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종단 발전과 불교 중흥을 위해서는 사부대중의 원력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승가와 재가, 그리고 종무원 모두가 하나의 원력으로 뜻을 모을 때 비로소 종단 발전과 불교 중흥이 가능하다”며 “저부터 더욱 낮추고 사부대중의 공의와 지혜를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스님은 “매일 아침 올리는 108배의 정진처럼 총무원장 소임 또한 수행임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며 “겸손하되 담대하게, 사부대중과 함께 불교중흥의 길을 앞장서 걸어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진우 스님은 부처님 전에 헌향한 뒤 고불문을 통해서도 새 임기에 대한 원력을 밝혔다. 진우 스님은 “사부대중의 간절한 원력을 모아 스님들께서 오롯이 정진에만 전념하도록 승가의 울타리를 굳건히 하고, 국민들의 지친 마음을 다독여 참된 평안의 길을 걷게 하겠다”며 “한없이 몸을 낮추어 대중들의 공의를 모으며 공감하며 공심으로 실천하겠다”고 발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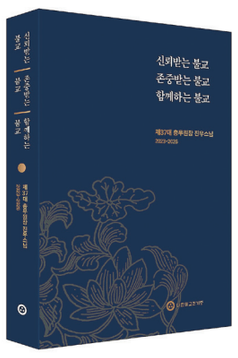
이후 총무부장 정문 스님과 종무원 대표 김용구 종무차장, 김추연 종무원 조합 위원장, 조계사 주지 담화 스님, 이승현 신도총회장이 진우 스님의 취임을 축하하며 꽃다발을 전달했다.

고불식을 마친 진우 스님과 총무원 부실장 스님들은 청사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으로 이동해 ‘세상의 평안을 함께 여는 미래불교’가 새겨진 현판을 제막했다.

한편, 진우 스님은 이날 오전 조계사 대웅전에서 108배를 올렸다. 진우 스님은 제37대 총무원장 취임 이후 매일 108배 정진을 이어오고 있다.

37대 성과자료집…“한국불교 이정표”

4년간의 주요 종책·성과 담겨
문화유산 보존 위한 제도 개선
사회적 약자 · 청년 세대에 손길
선명상 대중화로 국민 마음평안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집행부가 4년간 추진한 주요 종책과 성과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백서가 발간됐다.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성과자료집 편찬위원회(위원장 정문 스님·총무원 총무부장)’는 9월 23일 “2022년 9월 출범한 제37대 집행부의 발자취를 담은 〈신뢰받는 불교, 존중받는 불교, 함께하는 불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자료집은 △국가제도 개선 △사회소통·약자 지원 △전통문화 계승·불교문화 진흥 △국민 행복을 위한 사회적 실천 △천년을 세우다 △포교혁신과 신행문화 △승가복지·교육 △국제교류 △조직 개편 등 9개 분야로 나눠 주요 성과를 소개한다.

제37대 집행부는 2022년 9월 출범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종단이 나아갈 방향을 ‘신뢰받는 불교, 존중받는 불교, 함께하는 불교’로 제시했다. 특히 세상의 아픔을 함께하며 어려운 이웃을 보듬는 데 힘을 쏟았다. 사회적 참사와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했으며, 장애인과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에도 적극 동참했다. 재난 현장에는 신속히 긴급재난구호단을 파견하고, 병마와 싸우는 어린 생명과 에너지 취약계층, 자립준비청년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지원의 손길을 건넸다.

청년세대와의 접점을 넓히기 위한 사업도 추진했다. 청춘남녀 만남 프로그램 ‘나는 절로’와 청년 공양 프로그램 ‘청년밥심(心)’ 등을 통해 청년들의 고민과 현실에 다가갔고, 자연스럽게 불교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제도 개선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제37대 집행부는 ‘전통사찰법’, ‘자연공원법’, ‘문화유산법’ 등 8건의 법령 개정을 이끌며 사찰을 규제의 대상에서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담당하는 주체로 재정립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문화유산관람료 전면 감면을 시행해 오랜 갈등을 해소하고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국민이 불교문화유산을 더욱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국내외에 흩어져 있던 성보를 되찾는 노력도 이어졌다. 제37대 집행부는 성보 24건 40점을 환수하며 불교문화유산의 제자리 찾기와 역사적 정체성 회복에 기여했다.

선명상 대중화는 대표적인 종책으로 자리 잡았다. 국제선명상대회와 선명상 템플스테이 등을 운영하며 선명상을 국민의 마음 치유와 평안을 돕는 일상적 수행문화로 확산시켰다.

종단 운영체계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제37대 집행부는 1994년 종단개혁 이후 30년 만에 총무원·포교원·교육원의 3원 체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김내영 기자

조계종, 네팔 대홍수 피해에 자비 손길

전국 교구본사 · 단체 등 동참
“조속 복귀 위해 지원 지속”

대홍수로 고통받는 부처님 탄생지 네팔을 지원하기 위한 사부대중의 정성이 속속 답지하고 있다.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네팔의 조속한 복구를 염원하며 종단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네팔 대홍수 피해 지원 기금’을 전달했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인광 스님)는 9월 8일 3000만원을,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주지 성효 스님)는 9월 22일 5000만원을 전달했다. 제16교구본사 고운사(주지 등운 스님)·제17교구본사 금산사(주지 화평 스님)·제22교구본사 대흥사(법상 스님)는 9월 29일 각각 3000만원씩,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도 같은 날 5000만원을 지원했다. 제12교구본사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와 제19교구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도 10월 1일 각각 7000만원과 3000만원을 기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네팔 피해 상황에 대해 “도로 대부분이 유실되고 산악지대 지형으로 구조하기도 쉽지 않고, 피해 복구 기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동체대비와 이심전심의 마음으로 모든 인류가 무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각 본사에서 모아주신 성금이 현지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도 9월 18일 1억원을 전달했다. 현재까지 조계종이 진행하고 있는 긴급 모연 가운데 단일 기부금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

일반 사찰과 승가단체의 동참도 이어졌다. 서울 연화정토사(주지 성천 스님)는 9월 8일 500만원을, 부산 해광사(주지 태공 스님)는 9월 15일 1000만원을, 여주 신륵사(주지 법성 스님)를 비롯한 제2교구말사 22곳은 9월 22일 3500만원을 전달했다. 서울 학도암(주지 현무 스님)도 9월 28일 신도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기금 1000만원을 네팔 피해 복구를 위해 기탁했다. 운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회장 무영 스님)에서도 9월 28일 3000만원을 전하며 네팔의 조속한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

이와 함께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정원주)가 9월 17일 3000만원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중앙회장 선민지)가 9월 29일 1000만원을, 월드머시코리아(대표이사 현진 스님)가 9월 16일 3000만원을 전달했다.

조계종복지재단과 아름다운동행은 10월 31일까지 네팔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모금을 이어가고 있다.

이현희 기자

제38대 총무원장 취임사

“공의로 묻고, 공감으로 하나 되며, 공심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종정예하와 원로대덕 스님들,

전국 제방에서 수행과 전법에 진력하고 계신 스님들과 사부대중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의 소임을 다시 맡으며,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을 먼저 느낍니다. 지난 4년이 종단의 안정과 새로운 변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그 토대 위에서 한국불교의 새로운 백년을 향해 힘차게 도약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마음의 평화가 세상의 평화를 만드는 시대, 대한불교조계종이 그 길을 앞장서 열겠습니다.

지금 인류는 거대한 문명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과학과 물질문명은 눈부시게 발전했고, 인공지능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편리하고 풍요로워질수록 사람들의 마음까지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안과 외로움, 분노와 갈등은 커지고, 우리 사회는 진영과 세대, 계층의 대립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물질문명의 발전만큼이나 정신문명의 발전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 매일 운동하듯이,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도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불교는 2,600년 동안 바로 그 길을 밝혀왔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따라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좋음과 싫음, 기쁨과 괴로움 또한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마음을 운전하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제38대 집행부는 누구나 일상에서 자신의 마음을 평안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선명상을 국민의 마음운동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선명상은 특정 종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학교와 일터에서, 가정과 군대에서, 종교와 세대를 넘어 누구나 함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와 이웃 종교에도 적극적인 동참을 제안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지면 가정이 평안해지고, 사회의 극단적인 대립도 줄어듭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며 함께 살아갈 힘도 커집니다.

둘째, 자비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것은 오직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이웃, 사회와 국가, 수많은 인연의 도움으로 오늘의 내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가진 것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 사회에 회향하는 것은 자비를 실천함과 동시에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길입니다.

우리 종단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겠습니다. 남을 돕는 일이라면 서로 더 많이 돕겠다고 경쟁해도 좋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살아가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불국정토입니다.

셋째, 수행자가 존경받는 승가를 만들겠습니다.

중생에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길을 걸어가는 수행자의 모습이 바로 서야 합니다. 출가에서 교육과 수행, 전법과 복지, 그리고 열반에 이르기까지 종단이 책임지는 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겠습니다. 스님들이 생활과 노후를 걱정하기보다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한 분 한 분의 수행자가 세상의 등불이 되고, 국민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청정승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화합하되 멈추지 않고 개혁하겠습니다.

종단의 미래는 어느 한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저는 공의로 묻고, 공감으로 하나되며, 공심으로 실천하겠습니다. 교구와 소통하고 종도들의 뜻을 널리 듣겠습니다. 그러나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와 불합리한 관행은 충분히 소통하고 설득하여 과감하게 바꾸겠습니다. 화합은 변화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 나은 길로 나아가기 위한 힘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중한 불교문화유산을 지키고 세계와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많은 문화유산은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스님과 불자들이 목숨처럼 지키고 전승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문화유산은 불교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이며 대한민국의 문화이고, 미래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인류의 자산입니다. 국가와 사회도 그 보존과 전승의 책임을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 종단은 전통사찰과 문화유산, 사찰림과 수행문화를 더욱 철저히 보존하고,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선명상을 비롯한 한국불교의 정신문화가 세계인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제 한국불교는 산문 안에 머무르는 불교가 아니라 세상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는 불교, 국민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불교, 어려운 이웃의 손을 먼저 잡는 불교, 그리고 인류에게 새로운 정신문명의 길을 제시하는 불교가 되어야 합니다.

저부터 낮은 자리에서 듣겠습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 앞에서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안정에서 도약으로, 한국불교의 새로운 백년을 열겠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세상 속으로 펼쳐 국민의 마음에는 평안을, 우리 사회에는 화합을, 온 세계에는 자비와 평화가 가득하도록 저의 모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평안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70(2026)년 10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